



- Cover Story
- IDI 인터뷰
- 연구원소식
- 인천나들이
- 시정연구
- 도시동향
- 신간소개

2007년 9월호 ▼

검색

▶ 웹진 구독신청

Contents

IDI Interview

연구/원/소식



천진사회과학원 공동연구발표회
인천발전연구원과 천진사회과학원은 양도시의 관광정책 현황을 이해하고 실효성...

인천/나/들이



인천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
인천 교육과학원은 영종도에 서도 꽤 외진 곳에 자리잡고 있지만, 바로 옆...



인천아프리에 열네번째 만남
좋은 인간관계를 통하여 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다양한 교육과정과 평생교육을 ...

시/정/연구



인천광역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합리적 운영 방안
이 연구는 인천광역시 지구단위계획의...

도시/동/향



도시국가 싱가포르의 새로운 폐기물 수거체계
싱가포르는 685.4km²의 면적에 ...

신/간/소/개



KDI 2006 연차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2006년 한해동...

IDI인/터/뷰

인천아프리에 열네번째 만남

좋은 인간관계를 통하여 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다양한 교육과정과 평생교육을 통하여 창의성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라 생각합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교육에, 인간애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완성된다고 봅니다

• Cover Story

- ID인터뷰
- 연구원소식
- 인천나들이
- 시정연구
- 도시동향
- 신간소개

2007년 9월호

검색

▶ 웹진 구독신청



우선, 교육감님께서는 민선3대 교육감에서 연임, 올해로 6년째 인천교육의 수장을 맡고 계신데요, 평소 갖고 계신 교육철학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40여년 교육에 몸담고 그간 성장한 제자들을 보면 공부를 잘해서 좋은 직장, 좋은 직업으로 안정되게 살고 있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대성했다고 자타가 인정에 주는 제자들은 학창시절에 정익롭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학생들이 더 많습디다 이는 학창시절에 배우고 익힌 바른 인성이 사회에서도 통용된다는 결과라고 봅니다.



나근형 교육감

정보화시대, 글로벌시대를 맞이하여 세계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학교교육이 급변하는 세상의 변화 속도에 발 맞추기는 어렵습니다만 평소 교육이 배우고 익히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창조적인 능력을 기르는 교육이 되면 세상의 변화가 빠르게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인간관계를 통하여 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다양한 교육과정과 평생교육을 통하여 창의성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교육에, 인간애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완성된다고 봅니다.



‘의식주’ 다음으로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교육이기때문에 사교육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천e스쿨(사이버가정학급)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e스쿨의 운영방식과 효율적인 이용방법, 그에 따른 효과등에 대해 간략히 설명에 주시겠습니까?

‘인천e스쿨’은 교육과정과 연계된 학습콘텐츠를 제공하고 학습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주는 교육서비스입니다.

운영방식은 학급배정영, 학급신청영, 자율학습영이 있는데, 학급배정영은 선발된 사이버담당교사와 학과장 추천을 받은 학생들을 사이버학급에 배정하고, 담당교사가 학생들의 학습과정을 관리에 주는 유명이며, 학급신청영은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사이버학급에 가입하여 학습하는 유명입니다. 그리고 자율학습영은 학생 개인이 필요에 따라 원하는 시간에 스스로 학습하는 유명입니다.

2007년도 ‘인천 e스쿨’ 가입자는 중 학생수 대비 34%정도이며, 일일평균 접속자는 6,500여명으로 2006년보다 약 2,000여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지도를 맡은 사이버교사 270여명과 사이버교사 보조를 맡은 학부모뎀터 230여명이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교육청에서는 도서·농산어촌지역 및 저소득층 학생 등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학급배정영에 우선 배정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이용방법은,

첫째, 학생 스스로 자신의 수준에 맞는 양질의 콘텐츠를 선택하고, 계획적으로 스스로 학습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둘째, ‘인천e스쿨’은 엄선된 현직 선생님이 체계적인 학습관리는 물론, 교사상담, 생활상담 등 학습에 든든한 도우미가 되어 주기 때문에 과외 또는 학원을 다니지 않고도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첫째, 학습 콘텐츠에서 제공하는 영상평가 등을 통해 학생 스스로 학력을 진단해보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며, 온라인상에서 학생들끼리 협력학습도 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등 다양한 상호 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인전e스쿨’은 이제 정착기에 들어섰습니다. 그동안 운영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왔으며, 앞으로도 사용자 저변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홍보 및 연구 활동을 전개하고, 현재 활용되고 있는 콘텐츠나 운영 방식을 수정·보완하여 사용자들의 필요와 욕구를 수용하려고 합니다.

그밖에 도서지역과 농산어촌 확대지원, 토레 튜터제 활용, 양질의 콘텐츠 개발, 지도교사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운영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금년에는 사교육을 완화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별도 기구인 ‘사교육완화 대책반’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책반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과제 중 하나인 ‘인전e스쿨’을 활성화하고 내실 있게 운영함으로써, 과도한 사교육비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님들의 근심을 덜어드리고, 상대적으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도서지역 및 저소득층 자녀의 학습욕구를 충족시키며, 지역·계층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올해 2월 인천시가 영어도시선포식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시교육청이 인천시와 어떠한 협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개방화, 세계화로 세계도시 간 무한경쟁 속에서 인천이 국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가 경쟁력 확보와 글로벌 인재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과 시민의 영어구사능력은 사회적, 경제적 역량을 상승시키는 임입니다. 인천시는 시민들의 영어 활용 능력을 끌어올려 인천을 영어가 자유롭게 통용될 수 있는 국제도시로 만들겠다는 취지로 영어도시선포식을 했습니다.

2007년 9월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가천의과대학 캠퍼스에서 개최한 「제1회 인천영어축제」에서 우리교육청은 인천시청과 협력하여 국제도시인 인천의 특성을 살리고 영어상용화에 대한 영어교육의 붐을 조성하고자 인천의 소개 및 상황별 영어책자인 ‘Smile With English’을 발간하였고, 인천시의 영어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우리교육청에서는 우선 영어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하여 영어체험학습센터인 외국어수련부외 282교에 영어전용구역을 조성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인천시의 지원과 우리교육청에산으로 금년에는 243명의 원어민교사를 초·중·고등학교 및 외국어수련부에 배치하여 학생들의 듣기·말하기 중심의 외국어 교육이 활성화 되도록 하고, Jump into English 등 다양한 영어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활발한 영어교육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 안목에서는 원어민교사 채용보다 차츰 원어민을 대체할 수 있는 영어구사능력과 교과전문성을 갖춘 우수 영어교사 양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교육청에서는 영어도시 조성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영어교사의 원어민수준의 영어구사능력 향상과 교과전문성신장이 우선이라고 생각되어 인천교육연구원 외국어수련부 내에 영어교사 연수를 위한 영어교사교육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6개월 심화연수, 5개월 전문국외연수, 6개월 TESOL연수, on-line 및 off-line직무연수 실시 등 초·중등영어교사 연수를 강화하여 영어교사의 능력을 향상시켜 고품질 영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도 신도시에 진행되는 교육방향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곳과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육격차 등과 같은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승도국제도시 도시기반 및 정주여건 확충에 따른 신도시내의 신설학교와 기존 구도심학교 및 농어촌지역 소재 학교와의 교육격차 발생이 예상되나, 우리교육청은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첫째, 구도심권 소재학교 및 농어촌지역 학교에 디지털 도서관 지원, 과학실 현대화, 원어민 교사 배치와 영어전용 교실 구축, 학교 냉·난방시설, 급식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학교환경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방과후 학교 운영비로 농어촌지역인 강화구과 웅진군에 각각 국고 약 5억원, 지자체 3억원 등 총16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산어촌우수교(강화교)에 국고 약 1억2천만원, 교육청 5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도서벽지관련 부가점, 농어촌지역 근무 교육감인정점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우수교사근무 유도 및 근무환경개선으로 교육력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넷째, 학력인전프로젝트 추진으로 구도심권 소재 학교 및 농어촌지역 학교의 학력향상비 지원, 농어촌지역의 10개교에 도서구입비 1천만원 지원과 도서가증운동 등 학력향상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의 교육은 점차 발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천의 학생들과 그들의 든든한 후원자인 부모님과 선생님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에 주세요.

이제 우리 교육은 급변하는 시대적 요구에 적절하도록 스스로 모습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저를 비롯한 인천교육청 교직원 모두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학생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교육 풍토 조성에 모든 행정력과 교육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인천교육이 학생들의 열정과 꿈, 선생님의 사랑, 학부모님의 협조가 더해져 전국에서 으뜸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천교육을 아끼고 사랑에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Cover Story
- ID인터뷰
- 연구원소식
- 인천나들이
- 시정연구
- 도시동향
- 신간소개

2007년 9월호 ▼

 검색

▶ 웹진 구독신청

| 연구/원/소/식

■ 동남아시아 공무원 초청 연수



2007년 9월 10일 월요일 오전9시

인천광역시에서는 인천은 물론 대한민국을 홍보하고 행정체험 및 문화체험을 통한 향후 국제교류의 교두보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천인을 육성하기 위해 동남아시아 5개국 공무원을 초청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발전연구원은 2007년 9월 10일 월요일 오전9시 본원 대회의실에서 동남아시아 5개국 공무원(인도/미얀마/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파키스탄)을 초청하여연구원 및 인천광역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후에는 인천의 도시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개항장, 부평역, 구월동, 동춘동, 송도를 견학하였습니다.

■ 시의회 업무보고 실시



2007년 9월10일 월요일 오전10시30분

2007년 9월10일 월요일 오전10시30분 인천광역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8차 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본 임시회에서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를 실시하였습니다.

■ 천진사회과학원 공동연구발표회



2007년 9월28일 금요일 오후2시30분

인천발전연구원과 천진사회과학원은양도시의 관광시책 현황을 이해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인천-천진 청소년 관광교류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공동연구발표회를 개최합니다. 발표1 : 천진-인천 청소년 수학여행 시장 연구 - 천진사회과학원 왕 린연구원 발표2 : 인천-천진 청소년 관광교류 활성화 방안 - 인천발전연구원 심진범 연구위원 발표3 : 천진시 관광업 발전현황과 정책 - 천진시 리따옹 정책법규처장 발표4 : 인천시 관광진흥정책 - 인천시 조동암 관광진흥과장

- Cover Story
- ID인터뷰
- 연구원소식
- 인천나들이
- 시정연구
- 도시동향
- 신간소개

2007년 9월호

검색

▶ 웹진 구독신청

인천 교육과학원은 영종도에서도 꽤 외진 곳에 자리잡고 있지만, 바로 옆에는 인천과학고등학교와 인천시 과학관이 자리잡고 있어서 인천시 과학의 요람이기도 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

www.ienet.re.kr

인천 교육과학원은 영종도에서도 꽤 외진 곳에 자리잡고 있지만, 바로 옆에는 인천과학고등학교와 인천시 과학관이 자리잡고 있어서 인천시 과학의 요람이기도 합니다.

전시관은 크게 4개 전시실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전시실에는 인천에 대한 소개와 수족관, 놀이동산, 과학 놀이를 할 수 있도록 꾸며져 있습니다. 과학을 아직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어려운 유아들에게도 거울놀이와 잠수함 체험을 통해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모티브를 제공합니다.



전시관 배치도

또한, 놀이동산이 있어서 나이 차이가 있는 형제들이 있는 경우에 유아들이 놀 수 있는 공간도 제공합니다. 그래서인지 평일에는 어린이집도 단체 체험을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거울의 나라



해양생태계



천체관측실



해양에너지

제2전시실은 지구의 구성, 지구와 생명의 역사, 해양생태계, 육상생태계, 영상학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3전시실은 기초과학체험관으로 꾸며져 있고, 제4전시실은 미래과학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곳은 천체투영실로 천체투영기와 보조투영기로 별의 일주 운동 등 여러 천문현상들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곳입니다. 의자를 뒤로 넘기고 누운 듯이 천장을 보고 있으면, 실제 밤하늘을 보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계절별 별자리의 이동 등을 보여주는 등 여러가지 천문 현상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어린 아이들은 무서워하더군요.

평일은 1일 3회(11:00, 13:00, 15:00), 토·일요일은 1일 2회(11:00, 14:00) 상영합니다.

인천에서도 접근성이 좋고, 서울에서도 접근성이 좋은 영종도에 위치하고 있지만, 가는 길이 양쪽으로 눈발
을 내고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서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곳에는 먹을 곳이 없으니, 간식거리 정도
는 준비해서 가는 센스도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http://www.ienet.re.kr> 을 참조하십시오!

문의처 :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542(032-880-0792)

관공실 : 10시-오후 5시

관공실 : 기획, 운영 및 행정팀

- Cover Story
- ID인터뷰
- 연구원소식
- 인천나들이
- 시정연구
- 도시동향
- 신간소개

2007년 9월호

검색

▶ 웹진 구독신청

이 연구는 인천광역시 지구단위계획의 계획내용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평가하고, 인천광역시의 특성을 반영하는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최근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의 한 주거환경, 재건축, 재개발사업 등 주택사업이 증가로 지구단위계획 수요도 증가함에 따라 계획 적용기준을 검토하였다

인천광역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합리적 운영방안

-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중심으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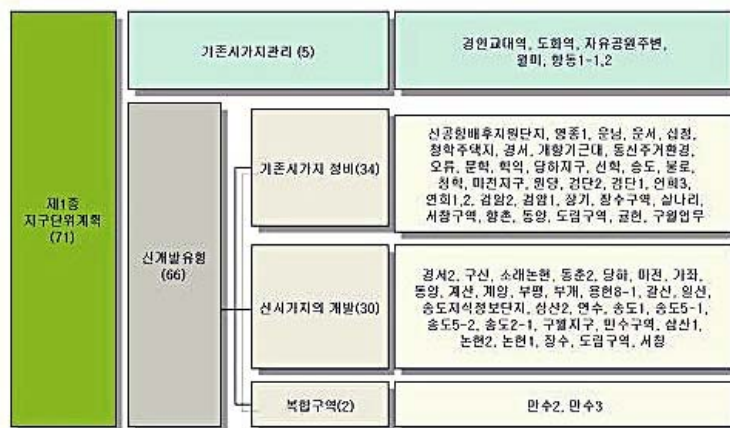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이 연구는 인천광역시 지구단위계획의 계획내용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평가하고, 인천광역시의 특성을 반영하는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최근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의 한 주거환경, 재건축, 재개발사업 등 주택사업이 증가로 지구단위계획 수요도 증가함에 따라 계획 적용기준을 검토하였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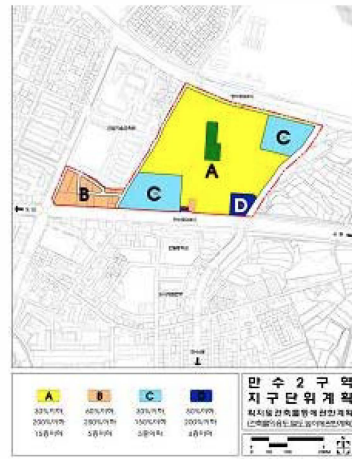
- * 인천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역은 71개 구역으로 신개발지역을 중심으로 지정된 특징을 보이고 있다.
- * 지구단위계획에 적용된 요소를 살펴보면 용도지역계획, 기반시설계획, 가구 및 획지 계획, 용도·밀도계획배치·형태계획 등 5개 항목의 적용 빈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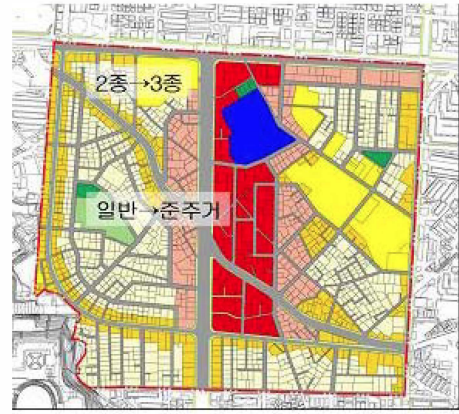
지구단위계획 문제점

- * 용도지역의 변경을 수반하는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사업 후 증가하는 인구 및 건축면적에 비교하여 사업구역 내부 및 외부도로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 * 기반시설 부족문제의 원인으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등 기반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확보 기준이 마련되지 못한 제도적인 측면을 들 수 있다.





만수구역



경인교대역 구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개선방안

- ◆ 구역의 경계설정 기준
 - * 구역의 경계설정 기준선을 집산도로 등으로 정형화하여야 한다.
 - * 검토구역 개념을 도입하여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 용도지역 변경 기준
 - * 용도지역간 변경 범위를 동일 용도지역 세분화 범위내로 한정하도록 한다.
 - * 일반주거지역에서 중세분 상향조정, 높이 완화시 일정비를 이상의 면적을 도시기반시설로 확보하도록 한다.
- ◆ 기반시설 확보 기준
 - * 도시계획 도로를 폐지하는 경우 폐지 면적 100%를 대체도로로 조성하도록 한다.
 - * 계획구역 1만㎡이상의 공동주택 건립 시 공원 및 녹지 확보기준은 계획구역 면적의 5%와 인구당 3제곱미터 중 큰 면적이상으로 확보하도록 한다.

정책건의 및 운영 개선방안

- * 인천광역시 독자적인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도입한다.
- * 지침의 항목은 구역경계의 설정 기준, 용도지역 변경의 범위, 용도지역·지구의 변경에 따른 밀도기준 및 기반시설 확보기준, 환경 및 경관기준 등 항목으로 구성한다.
- *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안)은 우선 인천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 내부 운영기준으로 활용하고 시행결과를 보완하여 지침으로 제도화하도록 한다.
- * 지구단위계획 운영의 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개발사업의 유형별로 지구단위계획수립 매뉴얼을 작성하여 해당지역 주민, 민간개발자, 담당공무원의 이해를 높이도록 한다.
- * 지구단위계획의 계획 내용 및 결정 도면을 전산화하여 인터넷등을 통하여 일반시민에 공개하도록 하고 개별 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요약한 홍보자료를 제작하는 등 지구단위계획 홍보정책을 추진하도록 한다.

시/정/연구

인천광역시 도시관련계획 및 개발사업의 적정성 평가에 관한 연구

도시계획·교통연구실 기윤환 책임연구원

- Cover Story
- ID인터뷰
- 연구원소식
- 인천나들이
- 시정연구
- 도시동향
- 신간소개

2007년 9월호

검색

▶ 웹진 구독신청

인천시는 2003년 경제자유구역지정 이후 개발사업의 급격한 증가와 2006년 2020 인천도시기본계획과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도로정비기본계획 등 계획이 확정되었다.

인천광역시 도시관련계획 및 개발사업의 적정성 평가에 관한 연구

인천시는 2003년 경제자유구역지정 이후 개발사업의 급격한 증가와 2006년 2020 인천도시기본계획과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도로정비기본계획 등 계획이 확정되었다. 하지만, 2010년내에 집중되어 있는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계획 및 개발사업들 간의 중복이나 상충적인 문제, 도시외곽의 신개발사업과 도심지의 도시정비사업의 관계, 수요를 간과한 토지 및 주택의 공급 등으로 인하여 계획 및 개발사업이 지역별로 편중되거나 사업의 지연, 지역특성과 무관한 개발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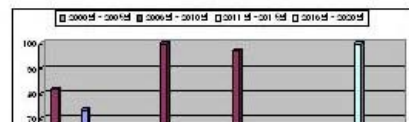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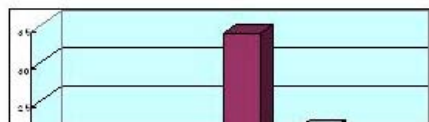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계획에 의해 개발사업이 진행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도시관련 계획 및 개별 개발사업이 지역특성을 반영하였는지, 균형발전을 유도하는지, 적정한 기능부여를 했는지, 인천광역시 공간구조에 부합한지 등에 분석 및 평가를 통해 인천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계획 및 개발사업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적수행을 위하여 공간구조 및 지역별 특성분석, 개발가능지 및 개발수용능력 분석, 개발사업의 지역별·시기별 분석, 개발사업상의 공급용량과 도시기본계획의 수용용량분석, 택지수요추정 등을 통하여 인천시에서 발생하는 개발사업과 계획간의 관계 등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하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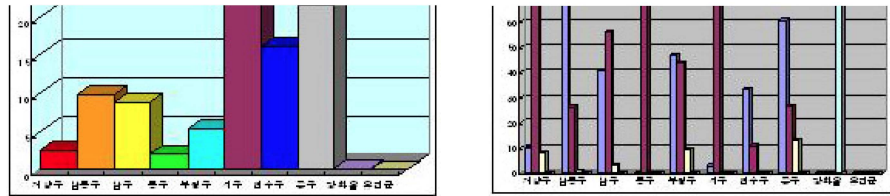
이러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계획인구지표 설정 및 지역별 배분상에서 과소 또는 과대설정되었다.

이는 ① 202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상 계획인구지표설정에서 시가화예정용지, 검단신도시 등의 인구가 포함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계획인구지표가 과소설정되었고, ② 수도권정비계획상 수도권인구에 대한 총량을 설정하고, 정책적 인구배분과정에서 계획인구지표가 과소설정되었으며, ③ 지자체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사이에서 계획인구지표에 대한 갈등으로 지자체는 과대설정을 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계획인구를 감소시키는 과정에서 계획인구가 왜곡되었다. 계획인구지표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설정되고 이를 기준으로 생활권별로 인구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지역별 특성이나 시기별 개발사업과 상반되는 인구의 배분이 이루어져 계양구와 부평구는 과소책정되었고, 연수구, 응진군, 동구 등은 계획인구가 과대 설정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둘째, 일정시기에 개발사업이 집중되어 수급불균형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주택 및 토지 시장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즉, 개발사업의 진행도가 대부분 2010년까지 설정되어 실제 개발사업에 의해 수용가능한 인구와 도시기본계획상 설정된 인구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택지수요량 및 소요량 추정 결과, 2010년까지는 개발사업면적이 택지수요량 및 소요량보다 많게 공급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그 결과, 도로, 상하수도, 전기 등 기반시설용량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주택미분양, 기성시가지내 공개발생, 지역별 주택가격격차의 심화 등 주택시장의 왜곡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연차별 개발사업의 지역별 비율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계획인구의 현실화를 통해 객관성있는 지표로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의 개선이 요구된다. 인구지표설정에서 20년 장기 부정확한 지표를 제시하기 보다는 중기지표로 활용하는 것이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유지하고 정확한 지표설정이 가능할 것이다. 인천시의 경우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인구지표와 실제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인구지표가 57만명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② 수도권정비계획상 인구지표를 강제 배분방식보다는 권장인구수준으로 제시하여 의도적으로 과소하게 배분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③ 인구지표설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적 증가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발사업에 의해 발생하는 타도시로부터의 유입율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관리해야 한다. ④ 계획인구지표의 지역별 적정 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계양구와 부평구가 개발사업에 의한 계획인구와 도시기본계획상의 계획인구지표가 상반되게 설정되어 있으며, 옹진군과 동구, 연수구는 개발사업에 비해 도시기본계획상 계획인구의 증가가 과다 책정되었다. 그러므로 도시기본계획상 생활권별로 배분된 계획인구와 개발사업 용량상의 계획인구간 차이를 줄이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에 의한 강제적 총량규제를 탈피하고 권장 인구지표로 유도하면 지자체내에서의 생활권별 인구배분의 문제는 감소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개발사업의 적정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인천시의 신개발 및 재개발사업의 비율을 보면 96%가 2010년까지 시행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개발사업에 의해 수용가능한 인구와 도시기본계획상 설정된 인구에서도 이 시기에 도시기본계획 인구설정보다 개발사업에 의한 인구수용이 더 많다. 또한, 지역별 개발사업면적은 서구, 연수구, 중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1%이고, 강화군과 옹진군 0%, 동구 2%, 계양구 2.7%로 일부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인천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균형발전과도 상반되는 것으로 시기별·지역별 개발사업의 배분이 요구된다. 지역별·시기별 개발사업의 적정배분의 원칙은 상위계획 및 인천시 정책의 지급성을 고려하여 분배, 인천시의 주요 시책이 도시균형발전이기 때문에 지역의 낙후도, 노후화 등 해당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배분, 주택 및 토지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인천시의 주택 및 택지에 대한 수요 및 소요량을 파악하여 이에 부합한 공급, 개발사업은 인구를 증가시키고 이로 인하여 증가된 인구만큼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이 요구되므로 도로, 교통, 상하수도, 전기 등의 기반시설의 용량을 고려하여 개발사업을 배분해야 할 것이다.

셋째, 계획과 개발간의 불일치 최소화해야 한다.

시가화에정용지, 도시정비사업 등에 대한 개발량을 2020 인천도시기본계획에서 미반영되었으며, 특히 인천 도시기본계획을 고려하지 않고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검단 신도시의 경우도 계획과 개발의 괴리를 가져오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방향을 제시하는 장기 비전이라 할 수 있으며, 개발사업과 여타의 하위계획을 선도하는 계획이라 할 수 있으므로 도시기본계획의 방향성을 고려하여 개발사업이 수행되어야 도시의 공간적인 균형과 계획적 개발에 의한 난개발이나 과잉·과소개발을 예방할 수 있다.

넷째, 개발사업의 적정배분을 위한 후속과제 추진이 요구된다.

도시기본계획,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등 계획과 경제자유구역개발, 택지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개발사업, 신도시개발, 도시정비사업 등의 개발사업간의 관계에 있어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개발사업의 지역별·시기별 집중으로 주택 및 토지시장의 왜곡이 예상되는 만큼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종합적 개발관리계획”의 수립이 요구된다. 특히, 개별 개발사업에 대한 통제수단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각종 사업이 추진된다면, 지역불균형의 심화, 기반시설의 과잉·과소에 따른 난개발, 지역별 주택 및 토지가격의 격차심화 등 많은 도시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향후 인천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을 지역별·시기별로 적정하게 배분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

- Cover Story
- ID인터뷰
- 연구원소식
- 인천나들이
- 시정연구
- 도시동향
- 신간소개

2007년 9월호 ▼

검색

▶ 웹진 구독신청

도시국가 싱가포르의 새로운 폐기물 수거체계

싱가포르는 685.4km²의 면적에 인구 423만 3000명(2003), 총 980,000세대로 이루어 도시국가이다. 처음 도착한 싱가포르는 대중교통이 잘 발달하였고 거리가 깨끗하다는 느낌을 주었다. 그러나 싱가포르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아직까지는 재활용품이나 유기성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분리수거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일반 시민이 모든 생활폐기물을 함께 버리면 이를 수거하여 4개의 소각시설에서 전량 소각한 후 매립처리 하는 단일 수거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한 가구에서 하루에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의 양은 20L정도로 우리나라에서 1가구에서 20L종량제 봉투를 4~5일 만에 한번씩 배출하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재활용품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재활용품의 분리수거 체계가 확립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최근에는 매립지 부족으로 재활용품의 분리수거 및 처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나라의 폐기물 관리 정책이 싱가포르 보다는 한 걸음 빨리 움직이는 듯하다.

싱가포르에서의 생활폐기물 수거는 GLC(sembwaste)라는 정부와 민간합작 회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거업체의 운영은 민간이 담당하고 정부는 운영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다. GLC는 싱가포르 전체 수거업무의 60%를 담당하고 나머지 40%는 민간업체에서 담당하고 있어 생활폐기물 수거업무의 대부분을 민간에게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민이 부담하는 생활폐기물 수거비용은 10\$/가구/월 정도로 민간업체에 의한 수거비용이 약간 높으나 수거비용의 부담 정도는 우리나라와 유사하였다. 다만, 생활폐기물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담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싱가포르의 시민들은 정액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정부에서 부담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으나 수수료에 의한 자립도는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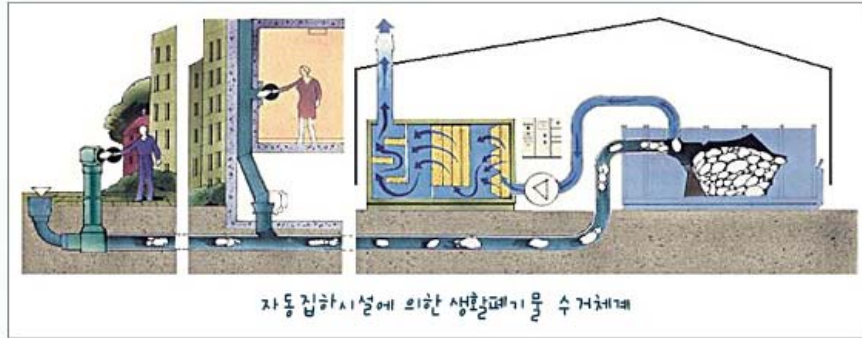
구체적으로 싱가포르에서의 생활폐기물 수거방식을 살펴보면 기존의 생활폐기물 수거 방식은 세대별 또는 층별로 설치되어 있는 슈트에 버려진 쓰레기를 1층에 설치되어 있는 저장조에서 수거하여 차량을 이용하여 소각시설로 운송하는 시스템으로 과거 우리나라에 설치되었다가 폐쇄된 경험이 있는 슈트에 의한 배출방법을 택하고 있어 기존 방식에 대한 악취, 비위생성, 소음, 먼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0년 전부터 고급주택을 중심으로 자동집하시설을 도입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기존 생활폐기물 수거 방식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도입되기 시작한 자동집하시설은 1960년에 스웨덴의 Solleftea병원에서 최초로 운영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는 3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300개 정도의 시설을 운영 중에 있다.

자동집하시설은 층별 또는 세대별로 설치되어 있는 슈트에 배출된 생활폐기물을 지하에 설치된 관로를 통하여 흡입한 후 자동으로 압축 컨테이너에 상차하여 운송하는 방법으로 인력에 의한 기존수거방식 보다 청결하고 편리하게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 수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기존 방식과 비교하여 설치 및 운영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총 50개의 시설이 주로 정부공사, 빌라, 콘도미니엄 등에 설치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듯이 싱가포르의 기존의 수거방식은 매우 낙후된 방법으로 싱가포르에서 자동집하시설의 건설은 고급주택이라는 인상을 주어 집값상승에 도움을 줌으로써 재개발지역이나 고급주택지역을 중심으로 시설의 도입이 적극 검토되고 있는 추세이다. 실제로 정부에서 추진 중인 자동집하시설은 3개 시설뿐으로 대부분의 시설이 일반개발업자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다.

자동집하시설의 건설비용은 초기에 사업자가 부담하고 친환경 기업이라는 이미지와 깨끗한 시설운영에 대하여 정부에서 포상금을 주는 형태로 지원하고 있으며 본 시설의 수혜자가 시설운영 및 대수선비용을 부담함으로써 타 지역보다 2배 이상의 높은 폐기물 처리비용을 배출자는 부담하고 있다. 이는 본 시설이 설치된 지역이 대부분 고급 주택지역으로 상대적으로 비용에 대한 부담은 적은 반면, 편리성과 청결성을 중시여기는 특성 때문으로 판단된다.



Gallop Greenz 전경

기존시설과 비교하여 자동집하시설의 운영비용이 많이 소요되고는 있으나 원격관리를 통하여 10개 이상의 시설을 1인이 관리함으로써 상당히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보이고 있어 대략5,000세대 이상 규모일 경우 기존의 수거방식과 비교하여 경제성을 갖출 수 있다는 분석 결과도 있다.



투입구

싱가포르에서 실제로 자동집하시설이 적용된 사례 중, Gallop Green와 Newton Gems는 건물의 가치상승을 위하여 본 시설을 도입한 고급주택 지역으로 세대별 투입구는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외부에 투입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투입구 주변의 악취제거 및 청결유지를 위하여 모든 투입구에 세척시설을 설치하는 등 청결한 환경과 주민의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외에도 JTC Biopolis는 고급주택지역이 아닌 과학기술의 집적 및 첨단산업의 유치를 위하여 조성된 연구단지로서 재활용품의 분리를 위하여 일반폐기물과 재활용품을 위한 이중 시스템으로 건설되었으나 현재는 일반폐기물만을 위한 단일 수거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 이전기사 ▶ 다음기사 ▶



≡ 전체기사목록

자동집하시설은 수거과정의 청결성과 배출자의 편리성을 장점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재개발 또는 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한 속도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자동집하시설의 도입을 위해서는 지하에 관로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현실적인 한계와 싱가포르와 마찬가지로 자동집하시설의 설치가 상대적으로 고급주거지역이라는 이미지 효과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자동집하시설의 운영은 상대적으로 높은 유지관리비용이 소요되므로 비용저감을 위해서는 운영의 효율성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시설운영의 자동화와 원격관리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과는 달리 유기성폐기물에 대한 별도의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유기성폐기물의 수거 효율성 증대를 위한 시스템의 보완도 필요할 것이다.

신/간/소/개

도시계획시설의 집행실태와 관리 방향

- Cover Story
- ID인터뷰
- 연구원소식
- 인천나들이
- 시정연구
- 도시동향
- 신간소개

2007년 9월호 ▼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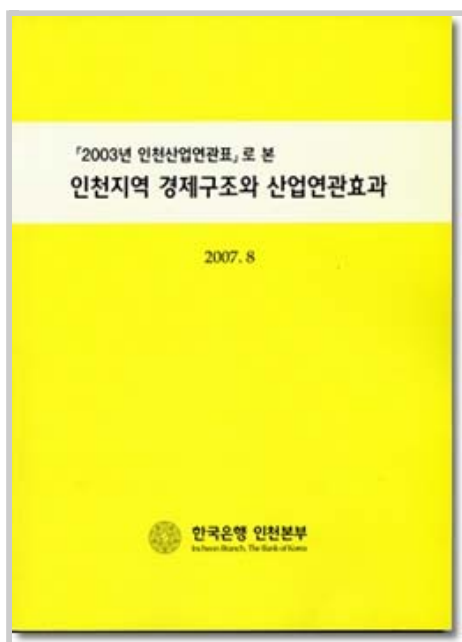
▶ 웹진 구독신청



경남발전연구원

우리나라 전역의 도시계획시설 관련 현황을 살펴본 후, 경남지역의 도시계획시설 집행 실태를 조명한 연구보고서.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면적이 많은 경남지역의 실태를 지적하고, 경남의 각 시군에서 집행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노력과 관련하여 시도 가능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인천지역 경제구조와 산업연관 효과



한국은행 인천본부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통해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서 제2의 도약을 도모하고 있는 인천지역에 별도의 지역 산업연관표 작성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보고서. 현재 지역산업연관표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하는데, 인천을 수도권에 편입시키고 있는 상황이라 인천만의 경제분석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다양한 경제구조 분석을 위해 인천산업연관표 작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에서 2006년 한해동안 진행된 연구 결과와 함께 2007년도 주요 연구 계획을 담고 있는 보고서. KDI에서 경제주체의 이해도를 높이고 합리적인 행동을 유인함으로써 국가경제운동을 바람직한 방향을 유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5년째 간행되고 있으며, 2006년도 당해 연도 연구과제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경제정보센터 운영 및 북한경제연구협의회 등 연구 관련 활동까지도 내용을 담고 있다.